



마하보디 사원

일보일배로 '성불의 땅' 까지

티베트 갈첸 라마 1년 6개월 고행...내달 보드가야 도착 예정

티베트의 한 스님이 티베트-네팔-인도에 이르는 '일보일배(一步一拜)' 고행을 1년6개월째 계속 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1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갈첸 라마(22)라는 이름의 이 스님은 2005년 7월 티베트를 출발해, 네팔을 거쳐 이번 달에 인도 비하르주에 도착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 발짝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三歩一拜). 삼보일배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한 발짝 걷고 한 번 절하는 일보일배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는 이기심과 탐욕을 참회하고,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돕고 살리겠다는 서원이 담겨있다.

갈첸 라마 스님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비하르주 보드가야. 보드가야는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를 곳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사원)이 위치한 불교 제일의 성지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하보디사 옆에 있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고

유네스코는 지난 2002년 마하보디 사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 스님이 하루 이동하는 거리는 7km 정도에 불과하다. 팔을 뻗어 절을 하고 나서 일보 걸은 다음 다시 절을 하는 방식의 일보일배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목적지인 보드가야까지는 약 180Km가 남아 있다. 앞으로 20여 일을 더 가야하는 셈이다.

갈첸 라마 스님의 일보일배를 본 많은 사람들은 스님의 불심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굳은 의지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현재 이 스님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매일 수천 명의 불교도나 힌두교도들이 도열해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보드가야에 있는 마하보디사(寺)의 비구 보디팔라 주지스님은 "이제 22일 정도가 지나면 갈첸 라마의 길고도 멀었던 여정이 끝이 난다"며 "그는 지금 너무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얼음 조각으로 나뉜 분황사탑

중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 전시...석가탑도

얼음조각으로 만나는 불국사와 석가탑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월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3회 중국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서 얼음조각으로 빛어낸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눈꽃축제인 하얼빈 국제 빙등축제에서는 송화강의 얼음을 이용해 2000여개의 얼음건축물과 조각이 빛어져 있다.

이번 빙등축제에 한국의 문화유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주체 측이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축제 테마를 '한



국풍정(韓國風情)으로 잡았기 때문.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불국사와 석가탑,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비롯해 광화문, 경회루, 절성대 등의 문화재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동상 등이다.

여수령 기자

중국사찰서 대졸자 채용 외부교류·수익증대 목적

중국 사찰이 자체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졸자들에게 처음으로 취업문호를 개방했다.

차이나데일리라는 중국 4대 사찰 중 하나인 법문사가 산시성 수도 시안 소재 농업삼림대학 출신 석사 4명과 학사 5명 등 모두 9명을 채용했다고 1월 8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사회는 최근 사찰들이 외부 교류에 적극 나서면서 광고, 경영 등 전문분야를 전공한 인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된 인력은 시안 지방 대졸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며, 일과가 끝나면 스님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저녁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반대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일례로 자체 복지재단과 잡지, TV방송,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 소림사의 경우 불교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한명우 기자

태국 불교신자 살해 무슬림 단체가 공격

태국에서 무슬림 무장세력에 의한 불교도 살해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방콕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태국 남부 알라주에서 불교도 3명이 무슬림 무장세력에 의해 총살당했다고 1월 14일 전했다.

태국 경찰은 또 총살당한 시신 옆에 자신들을 '파타니전사'라고 밝힌 메모를 발견했으며, 이 메모에는 '불교신도들은 보아라. 너희들이 위리의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너희 모두를 계속해 죽일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망한 불교신도는 한 쌍의 부부와 남성 한 명이다. 불교신도 부부는 알라주 고무중장에서 일하던 중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다른 한 남성은 오토바이를 탄 무장세력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의 알라, 나라티왓, 파타니 등 남부 일부 지역은 이슬람이 우세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불교를 부정하는 무슬림 세력에 의해 연일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베트남 불교계의 전통과 변화 바람

우리에게 알려진 베트남 불교는, 수십 년 간 망명 생활을 하며 서양에 불교 열풍을 일으키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여러 차례 추천된 바 있는 탁났한 스님을 통해서이다.

수십 년 전에는, 당시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하여 '평화'를 촉구하며 100일에 이르는 단식을 하고 소신공양을 했던 스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적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노벨평화상에 버금가는 '라프트(Raft)' 상 수상자로 선정된 틱광포 스님이 '출국 후 귀국 불허'가 염려되어 수상식에 참석하러 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갖

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집에서는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VNA통신이 1월 17일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베트남 승가회(Vietnam Buddhist Shanga: VBS)'의 고위 지도자인 틱트리틴(Thich Tri Tin) 스님이 이 '승가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서 "베트남 불교도들은 국민적 단합과 국가 건설에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는 것이다. 베트남 승가의 최고 지도자인 이 스님이 오히려 '정부 정책 협조와 국민 단합'을 더 강조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나는 우리 불교

베트남 불교 '호국사상' 등 한국불교와 유사 "국민적 단합과 국가 건설에 공헌해야" 목소리

고 있는 단편적 정보에만 의지하면, 베트남 불교 지도자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탁났한 열풍'이라고 할 정도의 바람이 불기도 했었지만, 간화선만을 유일 한 수행법이라 여기는 일부 선사들은 심지어 '탁났한 하근기 중생'이라고 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베트남 불교가 우리와 같은 대승불교권에 속하고 선종의 맥을 이어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事實·史實)조차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곳의 불교는 우리의 비슷한 과거를 갖고 있다. 일부 저항적인 스님들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정부 권력에 협조적이었다. 이른바 '호국불교'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어 보인다.

과거 종교 활동을 금지하였던 중국에서 지난해에 '세계불교포럼'을 개최하여 외국의 불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행사를 열고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의 갈등을 풀어 화합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있다. 결국 전근대 시기의 '호국불교'와 다름없는 '국가불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국 불교의 성격을 쉽게

계를 생각하였다. 올림픽 대회와 월드컵 유치·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이제는 정치 입선에 뛰어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까지 한다. 선거 때면 되면 유력 정치인들 지지모임에 얼굴을 비치는 스님들이 적지 않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에서 정치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생각과 몸짓을 넘어 정치권에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어떤 보상과 지원을 기대하는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

동일 중생들에 대한 지극한 비심(悲心)에서 독재 정권에 반대하여 단식을 하고 소신공양을 하며 나라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볼 수 없는 베트남의 여러 스님들과 정부에 협조해 '단합'만을 강조하는 '베트남 승가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땅의 불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까? 좌우(左右), 진보와 보수를 내세우며 결국 정치권에 기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불자가 선택해야 할 길일까?

■ 자유기고가

현대불교신문 추천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사/넝/ 희담석 항장주 중정/ 희담석합장주(넝개) 1만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르던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를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물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보이차

매일 3,000M 이상에서 생산된 자연산 여성교목(2년산)



최상의 보이차와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덜거나 쓰지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차 애자지: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상그리라' 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인원: 희담석
홍다원의 보이차는 희담석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심 정산에 위치한 황룡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담녹색, 황토색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입팀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인간 불다, Human Buddha,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부처님의 생애(팔상정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이 법문은 광주불교사원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불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법) 원은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령 원담 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했던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9